

#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 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02.14)

[목차]

I. 이집트 사태 추이 및 영향 .....	1
II. 이집트 주요 경제 부문별 동향 .....	2
III. Post-Mubarak 이집트 경제 전망 .....	7
IV. 이집트 진출기업 복귀 및 조업현황 .....	8
V. 이집트 사태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9
VI. 인근 U.A.E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1
VII. 이집트 사태에 따른 해외시장 점검 결과 .....	12
VIII. 이집트 사태에 대한 주변국 동향 및 반응 .....	14
참고1. 한-이집트 교역현황 .....	18
참고2. 한-중동 교역현황 .....	19

작성 : 중아CIS팀 한석우 과장(swihan@kotra.or.kr)  
감수 : 중아CIS팀 김용석 팀장(ysk@kotra.or.kr)

---

I

## 이집트 사태 추이 및 영향<종합>

### □ 사태 현황 및 분석

#### ① 2.11일(금) 후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전격 사퇴

- 시위 시작 18일째인 11일(금)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 권력을 승계 받은 이집트 최고군사위, 야권과 1년내 새로운 정부수립 예정

#### ② 중동.북아프리카 인근국으로 튀니지·이집트발 시민혁명 파급 확산

- 예멘, 알제리 등 반정부 시위 지속 중이며, 모로코, 리비아 등 반정부 시위 움직임도 있어

#### ③ 이집트 수출기업 5,656만불 감소, 수출 감소율 30% 추정

- 연간 추정 감소액은 4억 7,200만불 규모
-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진출기업 5개사의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263만불(2.8일부터 공장 가동 재개)

#### ④ 대피한 현지 진출기업, 이제는 이집트로 복귀하여 업무에 전념할 때

- 2.6일(일)부터 조업재개, 대피기업들 2.13일(일) 이후 속속 복귀 예정

#### ⑤ 진출기업, 사회적 책임(CSR)에 충실하고 수출기업은 시장을 다각화 해야

- 사회적 책임 : 지역사회 및 종업원들에게 “우리 회사” 이미지 구축 필요
- 시장다변화 : 수출기업, 해외수출시장 다각화로 유연하게 대응

### □ 이집트 사태 일지

- 1.25일(화) :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및 정치·경제 개혁 요구 대규모 시위 시작
- 2.01일(화) ~ 2일(수) : 100만명 시위 및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유혈 충돌
- 2.04일(금) : “The Day of Departure” 외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
- 2.10일(목) : 대통령,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권력이양, 사퇴 안할 것 발표
- 2.11일(금) : 무바라크 대통령 퇴임설 이후 설왕설래후 대통령 사임 발표

II

**이집트 주요 경제 부문별 동향**

**[은행] 2.6일(일) 업무재개, 2.13일(일) 지점 90% 지점 업무 재개**

⇒ 은행업무 1.30(일)부터 중단, 2.6(일)부터 재개<이하 현지시간>

□ 영업 현황 : 2.13일(일)부터 08:30~14:00(주요 지점 17:00)까지 근무

- 카이로 시내 152개 지점을 포함 이집트 전역에 341개 지점 업무 재개
- 이집트내 영업 은행 : 총 39개 은행(Local 19 + 외국계 18 + 합작 2)
- 1.30일(일) 이후 은행업무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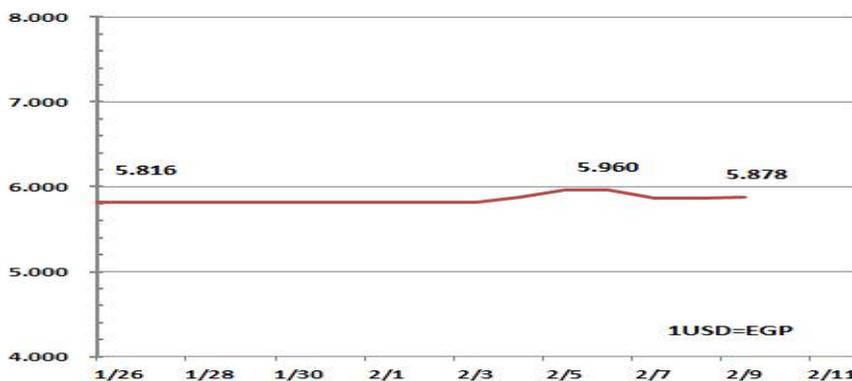
□ L/C 및 T/T 업무 재개

- Misr Bank, Audi Bank, Citibank 등 현지 로컬/외국계 은행들은 L/C 발행, T/T 송금 등 무역관련 업무 처리 중

□ 달러당 현지화(EGP) 환율은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적

- 2.8(화)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에 따라 달러당 현지화 환율 안정세
- 중앙은행은 2.10(목)부터 환율 고시
- 향후 달러당 현지화 환율 6EGP 이상 시, 추가 시장 개입 전망

**<이집트 파운드화의 대미환율 추이>**



자료원 : 이집트 중앙은행

## **[주식 시장] 2.16일(수) 주식시장 재개 예정, 1.30일(일)부터 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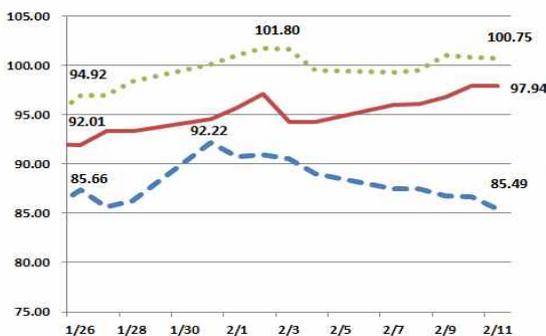
□ 2월 13일(일) 재개 예정이던 주식시장, 2월 16일(수)로 일자 변경

- 거래 시간은 당초 발표와 동일한 10:30am~1:30pm
  - 1시간 축소 : 시위 전 거래시간은 10:30am~2:30pm
- 前 대통령 사퇴로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하여 개장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
  -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개장될 경우 외화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 등 우려

## **[국제 유가] 이집트 사태 초기 일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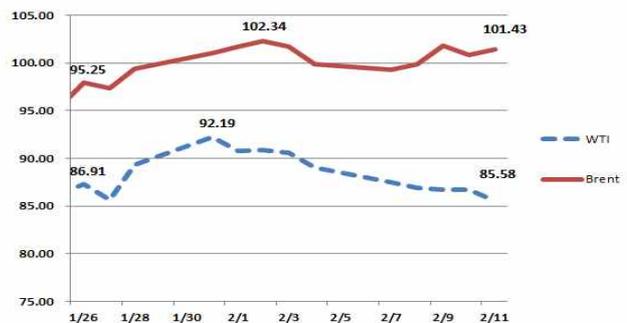
⇒ 2.11일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소식이후 하향 안정세

<국제유가, 현물>



자료원 : 한국 석유 공사

<국제유가, 선물>



자료원 : 한국 석유 공사

## **[세관 및 항만] 2.6일(일) 업무재개, 100% 정상화까지 시일 소요**

⇒ 통관업무는 인터넷 중단으로 1.28(금)부터 중단

□ 주요 항만(알렉산드리아, 수에즈, 포트사이드, 아인 소쿠나) 정상화 노력

- 수에즈 운하청(SCA : Suez Canal Authority), “경찰 및 군인의 철동 경비속 정상적으로 운영 중”<카이로KBC 인터뷰>

- 알렉산드리아항, 세관 공무원들 10:00~15:00까지 단축 근무중이며, 항만청(Port Authority) 6:00pm, 자유구역청(FEZ) 3:00pm 까지 근무
- 이집트 재무부, “수출입 업무를 위해 휴일인 금요일(21일)에도 통관 업무 진행”
- 통관 업무 역시 90% 수준으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집트 주요 항구 통관업무 현황>**

항 구	현 황	위 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 업무재개(2.6일부터)	현대모비스 이용
포트 사이드(Port Said)	- 업무재개(2.6일부터)	현대자동차 이용
아인 수크나(Ain Sukhna)	- 업무재개(2.6일부터)	소형화물 하역항

자료원 : 카이로KBC 등

**□ 내륙 운송은 정상화까지 시일 소요될 것**

- 정상궤도에 있는 해상 운송과는 달리 내륙 운송의 경우 1.13일(현지 시간)까지 軍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 정상화까지 시일 필요

**【관광산업】**

**□ 이집트 주요산업인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피해(카이로KBC)**

- 이집트 노동인구의 12%가 종사하며, 116억 달러 규모 외화 수입(2009년)
- 반정부 시위 기간 중 약 백만명의 관광객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
- 관광산업의 타격은 정부 및 개인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침체 가져올 것

**【근로자 파업】 현지시간 2.13일(일) 현재까지**

☞ 파업이 지속되면 이집트 경제에 부정적 영향

**□ 2월 9일(수) 기점, 이집트 전역 2만여 노동자 전면파업 돌입**

- 관공서를 시작으로 운송 서비스 뿐 아니라 전기, 섬유, 철강, 식품 등 전 산업으로 파급 중
- 파업사태는 대통령 일가의 재산 부정축재 의혹이 불거지면서 확산

- 이집트 공장 약 30%만 가동, 70%는 휴업 상태 ⇒ 카이로KBC  
 - 반정부 시위 후, 많은 공장들의 가동 중단과 납품대금 미수금 발생  
 ⇒ 임금 미지급 ⇒ 임금요구 ⇒ 노조 시위 및 파업으로 연결

<주요 분야별 파업(시위) 현황>

분야	파업 현황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일 보건부 청사 앞에서 수십 명 부패 척결 요구 시위 돌입</li> <li>○ El Hussein 대학병원에서는 600여명 직원들 임금 인상 파업</li> <li>○ 2.9일 200여명의 의약청 직원, 청사 앞에서 최저 임금인상 요구 파업</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박물관 직원들, '고유물 최고위원회' 앞에서 임금인상 요구 시위</li> </ul>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le Company for Food Mfg.사의 2천여 명의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 파업</li> </ul>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에어(Egypt Air) 노동자들, 회사 내 부패척결 요구 파업</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전기회사 노동자 수백여 명이 '남부카이로 전기공사' 앞에서 지사장 퇴진과 임금인상 요구 시위</li> </ul>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국영 신문 'Rosalyousef' 신문사 수백명 직원들, 회장 및 편집국장 퇴진 요구 시위</li> </ul>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le Car Co.에서 수백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 요구 파업</li> <li>○ 포트사이드 수에즈 운하청 산하의 'Maritime Arsenal' 본사 앞, 근로 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 요구 파업</li> <li>○ 이스말리아에서도 수에즈운하청 산하의 'El Temasah Co.' 근로자들, 인센티브 지급 요구 파업</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9일 Telecom Egypt 노동자 수백명, 람세스 도로 점거, 임금인상, 근로 조건 개선 요구 시위</li> <li>○ 이동통신 노동자 300여명, 타흐리르 광장에 임금인상 요구 파업</li> </ul>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 Mond Textile의 노동자 2,000여명, 임금인상 요구 파업</li> <li>○ 직물 제조공장이 밀집한 'Mahala' 지역 공장 노동자들, 임금인상 요구 대규모 파업</li> </ul>

자료원 : 카이로KBC 조사

## 【건설 · 플랜트】

- 내각교체 및 국가 위험 상승 등으로 정부 계획 주요 프로젝트 지연 전망
  - 원전/지하철/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 등
  
- 금년 본격 실시 예정 민관합동투자(PPP) 프로그램 진행 차질
  - 국가 위험도 상승에 따라 프로젝트 금융비용 상승 및 Financing 어려움
  -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 저조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건설·플랜트 프로젝트는 큰 타격 없어
  - 수주 프로젝트 3건 모두 사업초기이며, 관련 회사 직원들 대피

이집트 주요 현장 위치도



자료원 : 카이로KBC

## 【외국기업 동향】

- 스웨덴 Electro-Lux, 이집트 가전업체 Olympic Group 인수 잠정 중단  
- 2010년 10월 Olympic Group(중동최대백색가전 업체) 인수 계획 발표
- 스위스계 Nestle 등 조업 중단(Nestle, 종업원 수 3천명 수준)
- British Gas, 시추작업 중단, 시멘트 제조기업 Leverage 조업 중단 등

## 【기 타】 ⇒ 카이로KBC 조사 보고

- 시위로 인한 주식시장 손실액 약 180억 달러 추정  
- 1.30(일) 주식시장 폐장, 2.16(수)개장 예정
- 교통분야 손실액 1일 약 260만 달러 추정  
- 향만 170만불, 철도 70만불, 지하철 20만불 등

III

## Post-Mubarak 이집트 경제 전망<카이로KBC>

### 【경제 정책】

- 경기부양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유치, 親서방 개방정책 기조 유지 전망

## 【경제 전망】

- 금년 경제성장은 3-4%대로 둔화되고, 환율은 금년 연말경에 달러 당 6.4 EGP까지 상승하며, 재정수지는 GDP 대비 12%까지 확대, 물가는 연간 14.6%까지 급등하여 사회 불안요인 될 것
  - Credit Agricole Bank, 당초 5.3 - 5.5%에서 3.7%로 하향 조정
  - 환율 : 시위 확대전(1.27일) 환율 : US\$1 = 5.816 EGP
  
-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사례는 아직 없으나, 투자심리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자동차, 건설 및 관광산업이 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위기 속의 기회

- 우리나라 수출은 2분기 이후 회복 되어, 연간으로는 전년 수준 (22억 4천만불)유지, 자동차부품, 타이어, 건설장비 수출은 지속
  
- 일자리 창출, 피해 복구, 각종 인프라 건설 등 정부사업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위기 속의 기회를 포착해 나가야함

## IV | 이집트 진출기업 복귀 및 조업현황

- 이집트 진출기업 조업 현황[2.13일(일)기준]
  - 2.4일(금), 대규모 시위 이후 일부 기업들 가동 중단 및 단축조업
  - 2.6일(일) 부터 대부분의 공장들 정상가동 또는 단축근무 후 정상가동

□ 대피기업 복귀 현황

- 대피한 지상사 직원들 금주 및 다음주 초 복귀 예상이나 가족들은 전국적인 파업 등으로 복귀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임
- 2.15일(화) LS전선, 두산중공업, 포스코, OCI 상사 직원 복귀

<진출기업 조업현황>

기업명	인원	품목	조업 현황	파업
L	11	TV	- 09:00 ~ 17:00 까지 정상 근무 - 공장 가동율 100%로 정상 가동	無
D	8	원사	- 24시간 공장 운영 - 공장 가동율 100% 정상 가동	無
M	6	직물	- 24시간 공장 운영 - 공장 가동율100% 정상 가동	2.11일 일시동요
T	2	화학 제품	- 08:00 ~ 17:00 까지 정상 근무 - 공장 가동율 100% 정상 가동	無
H	1	물류	- 08:00 ~ 17:00 까지 정상 근무 - 2.13(일) 수입품 하역 작업 중	無
H	4	상사	- 09:00 ~ 16:00 까지 정상 근무	無
S	3	전자	- 09:00 ~ 16:00 까지 정상 근무	無

자료원 : 카이로KBC

주 : 현지 통신 사정상 위 상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이집트 사태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집트 수출기업의 수출 차질내역

- 이집트 수출기업 설문(수출기업 1,738사, 회신 208사, 응답률 12%)
  - . 수출기업의 약 58.7%가 수출 감소 있다는 반응
  - . 수출대금 지불 지연 등 미결제에 의한 직접 감소액 2,258만불
  - . 응답기업의 금년도 연간 감소예상액 합계는 5,656만불, 전체 수출기업 연간 추정 감소액은 4억 7,200만불 규모

□ 사태이후 수출현황

- 시위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기존 오더분 선적계속, 바이어 연락두절을 포함 수출을 포기한 경우는 36.8%

□ 이집트 진출기업 피해내역

- 진출기업 중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기업은 5개사 2.9일 기준으로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263만불
- . 피해를 파악 중이거나 미공개 기업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

<이집트 사태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생산차질 내역>

구분	피해내역	비고
수출기업	o 직접 피해액 2,258만불(미수금)	- 208개사 기준
진출기업	o 직접 피해액 263만불(생산 + 매출)	- 이집트
두바이	o LG전자 이집트산 TV수입 잠정 중단	- UAE 진출기업
합계	☆ 단기간 직접 피해액 2,521만불	

자료원 : 이집트 수출기업 및 진출기업, UAE 진출기업 대상 설문 대상 설문(27~28)

주: UAE 진출기업은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수출입 업무 추진

□ 이집트 바이어반응

- ☞ 바이어들, 기존 오더분에 대해서는 수입하겠지만, 2~3월 추가 오더에 대해서는 반감지 않은 반응

<이집트 주요 한국산 바이어 반응>

- ① Eng. Bassam Makar(Pico Engineering Co., 기계 및 건설 중장비 수입)
  - 2010년 1분기 대한 수입 규모 25만 달러, 올해는 10만 달러 이하로 집계
  - 2~3월 추가적인 수입 어려울 것, 상황호전 시 2분기에 한국산 수입 재개 예정
- ② Mr. Sherif Fathy Al Rashidy(Universal Part Co., 자동차부품 수입)
  - 반정부 시위로 지난 일주일간 자동차 부품 매장 99%이상 상점 폐점

- 2월 중에 추가적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수 없는 상황

③ Mr. Mohamed Mahmoud, El Fath Co.(자동차부품 수입)

- 시위 전 수입 계약한 품목은 한국에서 선적 완료, 이집트로 운송 중
- 시위 전 계약 건은 수입 예정이지만 2~3월 중 신규 오더 여부는 불투명

## VI | 인근 U.A.E.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아랍에미리트(U.A.E.)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많은 우리기업들도 U.A.E.에 진출해 있어 이집트 사태에 따른 U.A.E.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기업에게도 여파가 있는 여건

□ U.A.E. 경제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

**【U.A.E. 경제에 미치는 영향,종합】 ⇒ 부정적인 영향**

- 이집트 시위사태로 UAE의 종합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하락
- UAE 기업들, 2009~2010 기간 중 지속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집트는 주요 투자대상국
- ☞ UAE는 이집트에 건설, 은행, 에너지, 항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였고, 시위사태로 U.A.E. 투자기업들 수익성 악화 예상

**【관 광】 ⇒ 반사이익**

- U.A.E.는 관광분야에서 이집트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시위 사태로 인해 관광객들이 두바이로 몰리고 있음
- ☞ 두바이의 호텔 객실 예약률이 전년대비 20% 상승하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고, 이집트가 안정될 때 까지 이러한 추세 지속 예상

### <U.A.E. 바이어 반응>

① Hope Land사, Mr. Berehe G. Mariam, MD

- 이집트는 아랍에서 인구대국이며 문화 수출국이기 때문에 他아랍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② Cherub International사, Mr. Thomas K. Cherian, GM

- 이집트 현 상황에서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국 불안할 것

③ ATEEQ international group Mr. John Cherian, Sales Manager

- 단기적으로 이집트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며, 시위사태가 중동국가 중 경제사정이 열악한 예멘, 시리아, 요르단 등으로 확산 우려
- GCC국가들은 경제사정이 좋기 때문에 시위 우려는 없을 것임

□ 진출기업 반응(삼성물산-건설, KCC 등)

-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는 장기적으로 이집트 민주화 원동력
  - 과거 우리나라 선례를 보아 민주화에 많은 진통이 따를 것
  - 군부의 권력 독점 또는 내부 권력다툼 가능성도 배제 못해
  - GCC 국가들은 이집트와 달리 경제수준이 높아 시위 가능성 낮음
- ☞ 한국기업들이 이집트에서 즉시 사업을 하기에 쉽지 않을 것

## VII | 이집트 사태에 따른 해외시장 점검 결과

□ 이집트 사태가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인 영향은 적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해외 바이어 설문 결과(68개국 1,190개사)

- 전체 바이어의 약 28.0%가 “주재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고 응답
- 피해분야는 금융시장 위축(29.7%), 소비시장 위축(28.1%), 기업투자 위축(23.4%), 건설플랜트 발주지연(18.8%) 순
- 주재국 수입시장의 위축정도는 5% 미만(응답자의 63.4%)

□ 이집트 사태에 대한 주요국별 바이어 반응 및 특이사항

- EU, 북미, 중남미 등지는 이집트와 교역규모가 적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예상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케냐,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소비시장 위축, 관광산업 타격이 우려되는 한편, 남아공은 반사이익 기대
- 수에즈 운하 파업시 국제 선사들 남아공 경유로 인한 사용료 수입 증대

□ 이집트 사태가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미치는 영향

- 바이어들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하지 않겠다(88.5%)”라는 다수 의견 피력, 수입 감소 정도는 5% 미만으로 예측
- 우리기업의 수출에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집트와 직접 교역이 많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부정적 영향) ①對이집트 간접수출 감소(두바이 경유 등) ②인근국 소비심리 위축 ③달러화 수요증가로 수입수요 감소

(긍정적 영향) 이집트 수출 중단에 따른 수입국의 공급선 전환수요 확보(예상제품: 중장비, 섬유, 전자, 의류 등)

## VIII **우리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 진출기업, 사회적 책임(CSR)에 충실, 사태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대비해야
  - 민주화 시위 사태 이후 노동자 파업 등 2차적 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평상 시 지역사회 및 종업원들에게 “우리 회사” 라는 이미지 구축 필요
  - KOTRA에서 2010년 말 우리 해외진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CSR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60%(210개사 중 126개사)에 달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CSR에 대한 준비가 부족(대기업 55% 수준에 비해 중소기업은 30% 가량의 CSR 실천)하여 사태 발생 시 노동자 파업 등 피해발생 가능성 높음
- 수출기업, 해외수출시장 다각화로 국가 위기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
  - 이집트 사태와 같이, 국가적 위기 사태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수출 국가를 다양화 하는 노력 필요
  - 가급적 정치, 사회적 구조가 비슷한 국가보다는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국가를 대체 시장으로 발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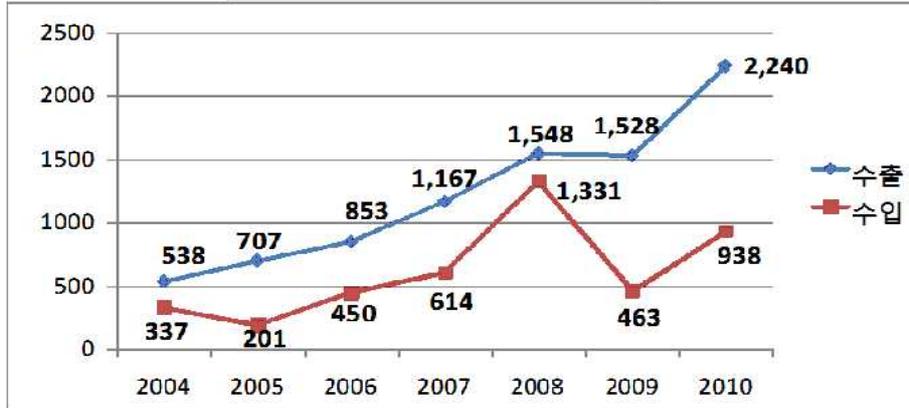
붙임 : 한-이집트, 한-중동 교역현황 - 끝-

### **【참고자료, 한-이집트 교역현황】**

□ 무역(백만\$), 2010년 수출기업 수 1,650개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538	707	853	1,167	1,548	1,528	2,240
수입	337	201	450	614	1,331	463	938
무역수지	201	506	403	553	217	1065	1302

우리나라의 이집트 수출입(백만\$)



자료원 : 관세청 무역통계

- 수출품목 : 승용차(26.0%), 자동차부품(12.6%), 합성수지(6.6%), 무선전화기(1.9%), 중장비(1.4%)
- 수입품목 : 나프타(51.5%), 천연가스(41.0%), 의류 및 면사(0.8%)

□ 우리나라의 이집트 투자 : 9건 1억 5,60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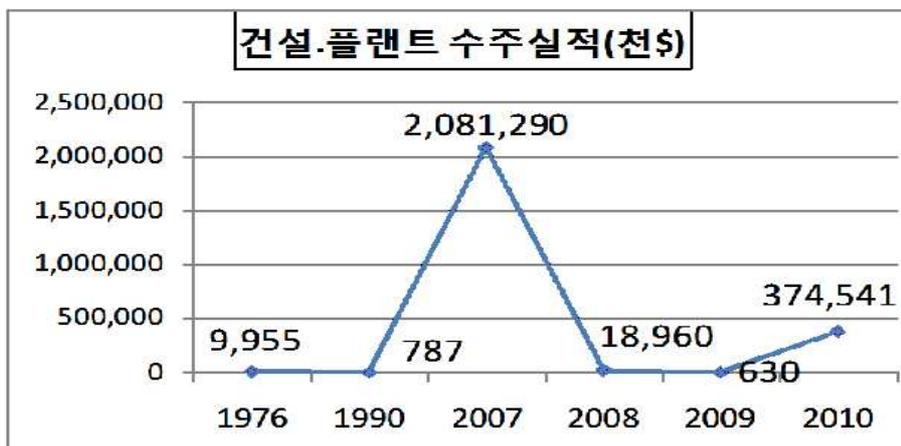
□ 진출기업 : 36개사(법인 5 + 지사 3 + 연락사무소 16 + 교포 직접투자 12)

□ 건설·플랜트 수주실적(천\$)

년도	1976	1990	2007	2008	2009	2010	누계
금액	9,955	787	2,081,290	18,960	630	374,541	3,777,402
건수	1	1	1	1	1	1	52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건설·플랜트 수주실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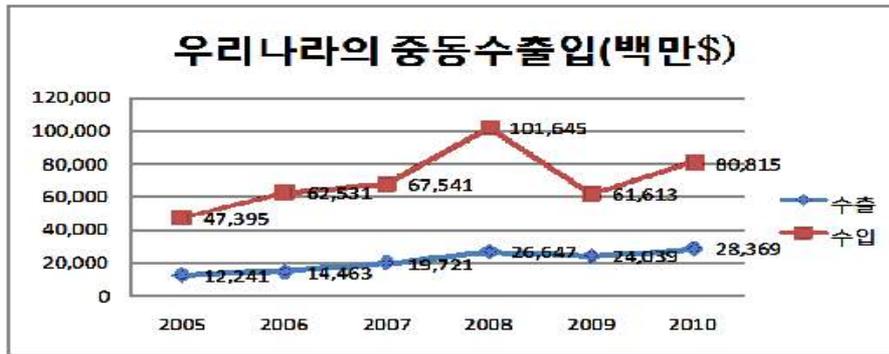
- 2007년 : GS건설, ERC 수침분해 프로젝트(20.1억불)
- 2010년 : 두산중공업, 아인 소크하나 보일러 패키지(3.7억불)

## 【참고자료, 한-중등 교역현황】

□ 무역(백만\$, %), 2010년 수출기업 수 7,464개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수출	12,241	14,463	19,721	26,647	24,039	28,369	6.1
수입	47,395	62,531	67,541	101,645	61,613	80,815	19.0
무역수지	△35,154	△48,068	△47,820	△74,998	△37,574	△52,446	
전체수출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466,384	100.0

자료원 : 관세청 무역통계



- 수출품목 : 승용차(23.3%), 선박(6.5%), 자동차부품(4.1%), 합성수지(4.0%), 화물자동차(3.9%)
- 수입품목 : 원유(69.5%), 나프타(11.0%), 천연가스(10.8%), LPG(4.0%)

□ 우리나라의 중등 투자 : 175건 5억 4,500만불

□ 진출기업 : 366개사

□ 건설·플랜트 수주실적(백만\$, %)

년도	1973	1990	2008	2009	2010	누계	
						금액	비중
금액	24	5,812	27,204	35,746	47,250	257,774	61.0
건수	1	20	166	128	113	2,951	37.7
전체	174	6,770	47,640	49,148	71,583	422,564	100.0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끝-

Kotra Executive Brief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발행인 | 조환익  
편집인 | 곽동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